## "경제도 어려운데 200억원대 조형물이라니…"

# U대회 상징물 '예산 낭비' 논란

### 광주시 "기념비적 시설 필요" 시의원들 "경제 살리기 먼저…설치 부당"

경기 불황 속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200억원대의 초호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하계U대회) 상징조형물을 설치키로 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시의회 유재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00억원 규모의 하계U대회 유치 기념 상징조형물을 설치키로 결정하고 최근 시의회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항목으로 1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하계U대회 유치를 기념하고 신도심의 취약한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해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담은 상징조형물 1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오는 9월 시작해 2011년 8월까지 2년동안 200억원을 투입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건립된다.

조형물 모델로는 스페인 사라고사 '파빌리온 브리지'·영국 템즈강 '밀레니엄 브리지'처럼 보행 전용 브리지를 설치하는 방안과 프랑스 라데팡스 '신 개선문', 경주의 '경주타워-천년의 빛' 같은 건축물 또는 게이트 방안, 인천공항의 'Flying to the Future', 서울 청계천 'Spring',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등 예술조형물 설치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시는 단순 조형물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립할 방침이라고 밝혀 브리지 형식의 조형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국제입찰 등을 통해 세계적 작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계U대회 유치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시설은 필요하다"며 "추경이 반영되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신 의원(광산2)은 이날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하계 U대회 유치는 기념돼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인지 추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경제살리기와 사회복지, 교육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얼마나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원인 양혜령 의원(동구1)도 "추경은 긴급을 요하거나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 못했던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아직 해당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 뭐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추경 편성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권재진〉 〈김준규〉 〈문성우〉 〈신상규〉 〈이귀남〉

# 문성우·권재진씨 등 5명으로 압축

### 靑 "조직내 신망·능력·도덕성 최우선 고려"

**■새 검찰총장 누가 되나**

법무부가 20일자로 차동민(50) 수원지검장을 대검 차장에 임명함에 따라 차기 검찰 총장 후보에 대한 인선 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 등이 총장 후보에 대한 추천과 평가, 검증 작업을 동시에 벌이고 있으며, 최근 사직한 고검장급 검찰 간부 5명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20일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권재진(56) 전 서울고검장과 문성우(53) 전 대검찰청 차장, 김준규(54) 전 대전고검장, 신상규(60) 전 광주고검장, 이귀남(58) 전 법무차관 등이 총장 후보자로 좁혀졌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까지 이들 5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주요 경력과 재산상황 등에 대한 정밀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성관 전 총장 후보자의 낙마에 검찰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만큼 이들 5명에 대한 검찰 내부의 여론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이들 중 천 전 총장 후보를 지명한 이른바 '깜짝' 인사 때문에 각각 지난 3일과 14일 퇴임식을 갖고 물러난 문 전 차장과 권 전 고검장은 원래부터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다.

특히 천 전 총장 후보 퇴임 이후로는 문 전 차장에게 일차적인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광주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문 전 차장은 당초 권 전 고검장과 함께 경합을 벌일 정도로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혀왔다.

그만큼 검찰 내 신망이 높고 능력도 뛰어나다. 재산이 많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다. 1989년에 구입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전부일 정도다. 자동차는 1993년형 소나타를 지금껏 소유하고 있다.

권 전 고검장도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북고와 서울법대 출신으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중도하차한 뒤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다.

이들 두 후보의 경우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데다 검찰 내부에서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점에서 출신지역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권 전 고검장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25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해 5명 중 재산이 가장 많다는 점이 상대적 부담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총장 후보 선정 기준을 세 가지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 부합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으며, 검찰 내부에서의 신망과 능력 등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 정가 라운지

### 광주시 간부회의 '생중계 중단' 이유는?

○…광주시가 20일부터 간부회의나 정례회의 등의 생중계를 중단하기로 해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시는 매달 1차례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3~4차례의 간부회의·확대간부회의 등을 열면서 각 실·국의 주요 현안보고는 물론 시정이나 현안에 대한 박광태 시장의 발언을 전 직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실·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중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시정에 대해 간부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중계를 안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시가 말단 공무원들도 시정의 큰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속해왔던 이들 회의의 생중계 방침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것은 박 시장의 여과 없는 '발언'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박 시장의 공무원 구조조정이나 지역교수 수준 등과 관련 '강경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노조와 교수들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기 때문이다.

### 북구 의원 보궐선거 않기로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북구의회 박혁순 의원의 사망과 최운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다 선거구(임동, 용봉동, 오치1·2동)과 라선거구(운암1·2·3동, 동림동)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북구선관위는 20일 "북구청·북구의회·정당·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약 8개월 남은 점과 3억7천여만원의 경비, 의회 운영의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 시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박정욱기자 jwpark@

## 기계8급 '토종 공무원' 광주시 기획실장 됐다

### 조용진씨 이력 화제

8급 지방기계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조용진(56) 광주시의 회사무처장이 20일 지방 공무원들의 꿈인 이사관직 기획관리실장에 올랐다.

조 신임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1977년 현 8급인 지방기계기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32년 간 광주시에서만 근무, 이사관 자리까지 오른 몇 안 되는 '토종 공무원'이 됐다.

그는 조직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과 탁월한 업무 추진력으로 공보관과 환경녹지국장, 자치행정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그의 공직 철학은 의외로 담박하다. "공직자로서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기본자세이고, 인사는 인사권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혐오 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집단민원 해결사'로 통한다. 그는 집단민원 해결 과정에서 '민원 현장으로 출근해 현장에서 퇴근하는 공무원'으로 불렸다고 한다.

조 실장은 "광주시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LA 타임스 "잭슨 수사, 살인혐의 적용 안될 것"

마이클 잭슨이 살해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잭슨 사건에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잭슨의 사인 수사에 참여 중인 여러 기관이 수집한 증거에 정통한 고위 수사당국자를 인용해 잭슨의 주치의 가운데 누구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달 착륙 40주년…아폴로 착륙선과 우주인들** 20일(한국시간) 인간의 달 착륙 40주년을 맞아 워싱턴 스미소니언 국립우주항공박물관 아폴로 우주선 달착륙선 앞에서 최초로 달을 밟았던 버즈 올드린(왼쪽부터), 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스 소장과 존 글렌 상원의원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